

에버퓨어 플랫폼: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

지능화, 자동화, 제어 기반 데이터 운영

요약

기업의 데이터 환경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인프라 모델로는 더 이상 필요한 속도, 일관성, 제어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은 AI 워크로드, 증가하는 사이버 리스크, 그리고 상시 가용성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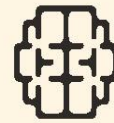
에버퓨어(Everpure™) 플랫폼은 모든 스토리지를 단일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 운영되는 가상화 데이터 클라우드에 통합합니다. 수작업 기반의 조율, 스크립트, 사후 대응형 도구에 의존하는 대신, 이 컨트롤 플레인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책을 통해 의도를 반영하며, 실시간으로 실행합니다.

기술 책임자의 시각으로 보자면 인프라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워크플로우가 가속화되고 리스크는 감소되며, 거버넌스는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됩니다. 이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더 빠르고 더 지능적인 성과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와 데이터 관리 플랫폼에서 '지능'의 역할

에버퓨어 플랫폼은 단순한 스토리지 전락이 아니라, 스토리지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운영 모델입니다. 워크로드의 동작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적응하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모든 환경에서 데이터를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델의 중심에는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은 단순한 제품이나 기능이 아니라, 플랫폼을 가동하는 두뇌입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전체 데이터 환경 전반의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글로벌 정책을 적용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보다 지능화된 자동화

정책 기반 제어를 통해 실시간 텔레메트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프로비저닝하고, 최적화하며, 변화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예측형 운영

변화를 조기에 탐지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성능과 유효성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유지합니다.



자율적 거버넌스

정책을 기반으로 접근 제어,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를 모든 환경 전반에 걸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으로의 전환 여정



시스템을 하나씩 관리하는 대신, IT 가 데이터를 중앙에서 운영합니다. 데이터의 배치, 보호, 성능, 비용, 규정 준수는 단일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 관리됩니다. 온프레미스와 멀티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우드와 같은 민첩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된 데이터 클라우드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은 추상화에 기반합니다. 데이터가 위치, 워크로드, 프로토콜, 환경에 관계없이 단일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분산된 스토리지나 단절된 클라우드 버킷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가시성과 일관성은 인프라가 가상화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에버퓨어 플랫폼은 데이터 서비스를 물리적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합니다. 블록, 파일, 오브젝트 데이터는 모두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 클라우드로 통합되어 소프트웨어의 조율을 거친 후에 API 기반 스토리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들은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 운영됩니다.

가상화된 데이터 클라우드는 정적인 인프라를 반응적인 서비스형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컨트롤 플레인은 단순히 사전 정의된 작업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반에서 기능으로: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

가상화된 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은 새로운 IT 운영 방식을 실현합니다. 단순히 중앙화된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정책 기반 결정을 사용하여 데이터 자산을 능동적으로 가동시킵니다.

에버퓨어 플랫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키텍처에서 실제 운영으로 전환합니다.

지능형 자동화와 워크플로우

에버퓨어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은 수동적인 개입을 의도 기반 운영으로 대체합니다. 취약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툴을 억지로 연결하는 대신, IT 는 정책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정의하고 플랫폼이 이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프로비저닝은 정책 기반과 템플릿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능, 보호, 복제, 규정 준수가 일단 정의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단기 테스트 환경을 가속화할 때 제어 플레인이 항상 올바른 행동을 적용합니다.

수동 구성 vs. 사전 설정

워크로드 자동화 및 실수 근절

새 스토리지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한 일반적인 워크플로우

	볼륨 생성	스냅샷 설정	QoS 정의	복제 설정	배포
수동 접근 방식	볼륨의 수는? 사이즈는? 어떤 어레이인가?	스냅샷 스케줄 정의. 보존 및 빈도 정책은?	이 워크로드에 하드 제한이 필요한가? 대역폭 또는 IOPS 는?	복제가 필요한가? RPO 는? 어떤 어레이로 복제할 것인가?	구성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실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시정하는가?
한 번 사전 설정을 구성하고 나면 필요한 만큼 워크로드를 배포					
사전 설정	사전 설정 구성	자동	자동	자동	워크로드 x1000 배포

실시간 텔레메트리는 자동화를 촉진합니다. 플랫폼은 사용 패턴, 성능 변화, 대기 시간 변화, 리스크 신호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상태에 변화가 포착되면, 컨트롤 플레인은 워크로드를 즉시 리밸런싱하고, 정책을 조율하거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합니다.

운영 방식은 개별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의도를 정의하는' 단계로 전환됩니다. 플랫폼은 이러한 결과를 대규모로 자동 실행합니다.

또한 에버퓨어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은 API 중심으로 설계되어 CI/CD 파이프라인, 서비스 카탈로그, 규정 준수 대시보드 등 보다 광범위한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대신, 스토리지를 기업 운영 방식에 직접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내재화된 사이버 복원력

사이버 복원력은 더이상 인프라에 사후적으로 추가된 별개의 워크플로우가 아닙니다. 에버퓨어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을 사용할 시, 사이버 복원력은 플랫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호 정책이 자동으로 실시되며, 불변 스냅샷이 기본적으로 생성됩니다. 또한, 복제와 복구가 프로비저닝에 직접 이어지게 됩니다. 명확한 복구 지점은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니라,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생성되고 관리됩니다.

지능형 사이버 복원력과 데이터 보호

내재화된 사이버 복원력



텔레메트리는 비정상적 접속 패턴, 예상 외 쓰기 작업, 초기 랜섬웨어 징후와 같은 이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탐지, 보호, 복구는 동일한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즉각 행동을 취하여 위협을 차단하고 복구에 필요한 투명한 환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원력은 선제적이고 지속적이며, 복구 시간이 수 시간에서 수 분 단위로 단축되며, 전체 워크로드 상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자율적 거버넌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거버넌스가 종종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거나 수동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에버퓨어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은 수동 조율을 자율 거버넌스로 대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 기반 제어에서 비롯됩니다. 액세스 권한, 보존 기간, 데이터 분류, 규정 준수 규칙은 일단 정의되면 전체 시스템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워크로드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상속받게 되며, 민감한 데이터는 어디로 이동하든 보호됩니다.

제어 플레인은 전체 환경을 아우르기 때문에 격차나 불일치가 있으면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태그 누락, 정책 이탈, 무단 접근과 같은 문제를 사후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거버넌스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팀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게 적용됩니다.

AI 텔레메트리: 신호를 의사결정으로 전환

컨트롤 플레인의 중심에는 AI 기반 텔레메트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로그나 메트릭스가 아니라 성능, 행동, 역량, 보안, 정책 준수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신호 분석입니다.

대규모 플릿 데이터 세트에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은 그와 같은 신호를 예측과 조치로 전환합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임계점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리스크를 예상하고 비효율성을 파악하여, 자동적으로 변환을 실행하거나 제안합니다.

이제 IT 는 문제 발생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결론

에버퓨어 지능형 컨트롤 플레인은 가상화된 데이터 클라우드를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IT 책임자는 이를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예측 지능을 활용하며, 조치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설계의 관리를 받으며,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축소되고, 운영 규모가 커지더라도 복잡성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스마트한 스토리지를 넘어, 더 스마트한 데이터 운영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버퓨어 플랫폼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에버퓨어 플랫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웹사이트 방문하기

02-6001-3330

